

여론조사 블랙아웃...깜깜이 선거전 시작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정당들, 부동산 잡기 총력 코로나19 여파 투표 회피 우려 이번주 금·토 사전투표 독려

4·15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9일부터 금지되면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시작됐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서 어떤 후보가 앞서고 뒤처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 표를 행사한다. 무엇보다 아직도 지지 후보·정당을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대이동'이 총선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 기간 부동층의 향배는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따라서 여야 정당은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면서도 부동층 잡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법상 오는 9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

는 15일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성을 훼손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당·후보들의 경우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사각각 변하는 판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는 만큼 '신속 대응'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선거는 부동층이 아직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체 선거 흐름을 읽기가 쉽지 않다.

지난 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지난달 31일~이달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 대상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부동층은 22%로 유권자 5명 중 1명꼴이다. 접전지는 물론 전체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로 여야 모두 부동층 표심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당장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선거일 대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투표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유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흐름을 선거일까지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집권당에 계속 힘을 실어달라는 기조를

끝까지 가져가면서 후보들의 막달 등 돌발 변수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사전투표 참여를 검토하는 등 사전투표도 독려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투표를 통한 정권심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동안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은 '사이(shy) 보수' 등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이진복 총괄선대본부장은 "사이 보수는 위기상황 때 더 강해지고 많아진다"며 "야당이 위험하고 국가가 하는 일이 이게 아니라고 판단할 때 더 많이, 깊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우려로 보수 성향 노년층이 집에 머물면서 사전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재난 상황인 만큼 미리 투표해놓으시라는 취지로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북구 유세현장 뜨거운 환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광주 북구에서 열린 한 유세현장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함평군수 보궐선거 '대혼전'

후보 5명 접전... 오늘 TV토론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민주당과 민생당, 무소속 등 총 5명의 후보가 출마,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다.

8일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함평군수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익 전남도당 부위원장과 민생당 김성호 전 전남도의원, 무소속 정철희 전 함평군의회 의장, 정두숙 전 KBS 프로듀서, 신경선 전 함평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등 5명의 후보가 나섰다.

선관위는 9일 TV토론회를 진행하고, 10-11일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토론회에는 이상의 민주당 후보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희, 신경선, 정두숙

무소속 후보 3명이 이상의 민주당 후보에게 방송토론회 참여를 요구했으나 받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 후보들은 "함평군민은 동등한 조건에서 모든 후보를 비교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만 함평군민들은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과열현락 조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와 관련 사법당국의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상의 민주당 후보와 정철희 무소속 후보가 한 발 앞선 가운데 민생당 김성호, 무소속 신경선, 정두숙 후보가 막판 뒤집기를 노리며 표발을 갈고 있다. /함평=황은학 기자 hwang@

선거 벽보 훼손·공보물 폐기 신고 잇따라

광주경찰청 49건 접수...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등 엄벌

4·15 총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선거 관련 신고가 광주에서 잇따랐다.

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총 49건의 선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오후 6시 30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에서는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선거 벽보의 고정 테이프가 뜯기고, 후보자 사진의 눈이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후 1시 55분께에는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원룸에서 선거 공보물 14개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라진 공보물은 건물 관리인이 우편함을 정리하며 폐기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경고 조치했다.

광주 서구에서는 도로에 세워진 선거 유세 차량 탓에 불편하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등 지난 7일 하루 동안 광주에서는 4건의 선거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

현재까지 거리유세 방해, 선거관계자 폭행 등에 대한 신고는 없었으며, 벽보 훼손 2건, 소음 등 기타 47건 등 총 4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벽보 훼손 수준의 선거 관련 범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등 처벌이 가법지 않다"며 "24시간 즉시 대응 태세를 갖춰 신속히 조동 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총선 라운지

천정배 "호남 대통령 만들기 마지막 정치 소임"

서구를 후보

민생당 천정배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후보가 8일 '긴급 호소문'을 발표해 "민주당 씩씩이로는 호남 대통령을 만들 수 없다"며 "마지막 정치생명을 걸고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천 후보는 "호남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호남의 미래는 호남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 뒤, "광주가 다시 민주당 일당독재체제로 되돌아간다면, 과거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무기력하고 무능



한 정치가 될 것"이라며 "오랜만에 찾아온 호남 대통령을 만들 기회도 날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에 '물지마 투표'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길도, 호남발전과 호남의 미래를 위한 선택도 아니다"라며 "호남 대통령을 만드는 대장정에 함께 해달라. 민주당의 씩씩이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용빈 "광주시 광주의료원 설립 환영"

광산갑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는 8일 "광주시의 '광주의료원' 설립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광역시의 '광주의료원' 설립은 저(이용빈)의 총선 공약과 같아,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신속하게 건



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광산구와 서구에 설립하고, 외부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통합 운영하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박지원 "청년 창업 지원·기본소득법 제정 추진"

목포시 후보

민생당 박지원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는 8일 "청년취업과 창업지원, 청년기본소득법 제정, 산학연계 및 전문교육 활성화, 청년문화발전 지원 등 청년세대 5대 맞춤형 공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청년취업 지원정책으로 지역가산점 확대(5%~20%)와 지방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취업자 우대를, 청년창업 지원정책으로 '목포형 프랜차이즈' 육성



육성과 '청년창업 공작소' 설치, 5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무보증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박 후보는 "청년세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목표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게 마지막 남은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

윤소하 "온라인 개학, 디지털 격차 없어야"

목포시 후보

정의당 윤소하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는 8일 "내일(9일)이던 온라인 개학이다. 중3과 고3부터 차례로 한다"며 "시스템 먹통, 디지털 격차, 돌봄노동이 온라인 개학 성공의 3가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혁신적인 선생님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 준비했고, 직원들과 교육당국이 심혈을 기울인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후 3가지



를 당부했다.

윤 후보는 "첫째, 시스템 먹통이 없어야 한다. 한꺼번에 프로그램 접속이 폭주하면 연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이어 "두 번째는 디지털 격차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스마트기기 대여뿐만 아니라 멘토링 지원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